

2017.05+06 | Vol.190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Dail





계속되는 오병이어의 기적

살랑이는 봄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에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5월입니다. 완연한 봄, 계절이 선사하는 포근함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그리고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도 온전히 전해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다일공동체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며 29년 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가고 있는 다일공동체 밥퍼에서는 1,000만 그릇 밥퍼 돌파를 기념하여 5월 2일 '오병이어'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밥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까지 함께 나누고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드리는 다일공동체의 '원스탑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해 소개,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노숙인, 무의탁 노인분 아니라 각계 인사,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기업 및 단체, 자원봉사자도 함께 자리해 2,000인분의 대형 비빔밥을 나누고 밥퍼를 통해 삶이 변화된 노숙인 형제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진정한 나눔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밥 한 끼로 수많은 이들에게 수천만 번의 위로를 건넸던 29년. 이제는 밥뿐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의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감으로 미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표명했듯이 다일공동체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더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다일공동체가 준비 중인 '원스탑 복지서비스'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오며 뜨거운 기도와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형제, *천*인드볼림

CONTENTS



06

꿈을 선물합니다!
김모세님 인터뷰

02

밥퍼 1000만
그릇 돌파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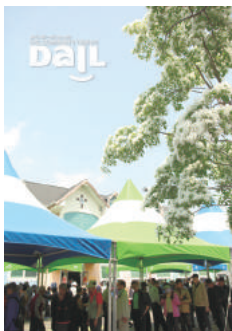
다일공동체의
MOU현장

06

후원자
김모세님 인터뷰

08

현장이야기



C.O.V.E.R.S.T.O.R.Y

따스한 봄, 따뜻한 밥 한 끼
봄 햇살을 맞으며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식사를하기 위해
줄 서 계신어르신들을 위로해 주는 이팝나무 꽃

22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26

신규후원

31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은진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7년 5월 발행처 | 다일공동체
주소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32
홈페이지 | www.dail.org

독일 유학을 준비하던 1988년 11월, 청량리역 광장에서 굶주림에 쓰러진 한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며 유학을 접고 냄비를 들게 된 청년, 최일도 목사. 양은냄비 하나로 시작된 소외된 이웃을 향한 그의 따뜻한 나눔은 밥퍼나눔운동본부를 통해 1,000만 그릇을 돌파, 올해로 29년 째 그 기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

5월 2일 '이 땅에 밥 끓는 이 없을 때까지' 

밥퍼, 기적의 1,000만 그릇 돌파!

2014년 700만 그릇 돌파 기념 대형비빔밥 나눔 퍼포먼스



청량리 쌍골다리 옆, 하루 1,000여명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찾아와 식사를 하고 가는 밥퍼나눔운동본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과 끊임없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오늘도 나눔의 기적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에서 지난 5월 2일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적의 1,000만 그릇 돌파를 기념하여 '오병이어'의 날 행사를 맞은 건데요.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밥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까지 함께 나누고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드리는 다일공동체의 「원스탑 복지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 그 필요성에 대해 전하며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노숙인, 무의탁 노인뿐 아니라 각계 인사,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기업 및 단체,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자리해, 2,000인분의 대형 비빔밥을 나누고, 밥퍼를 통해 삶이 변화된 노숙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보았습니다.

이날, 밥퍼 수혜자에서 지금은 밥퍼 자원봉사자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치술 할아버지, 밥퍼 스텝의 도움으로 74년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생애 첫 생일을 맞을 수 있었던 이종순 할머니 등 밥 한 끼로 삶이 변화된 이들이 들려준 참된 고백은 참석한 많은 분들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주어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밥 한 끼로 수많은 이들에게 수천만 번의 위로를 건넸던 다일이 걸어 온 29년, 이제는 밥뿐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의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감으로 그 미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일공동체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원스탑 종합복지를 실천할 '사회복지시설 건립 운영' 프로젝트, 「원스탑 복지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노년의 삶에 활력을 더해드리고자 하는 다일공동체의 오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길, 다일공동체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더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길 많은 분들의 응원의 기도와 따뜻한 나눔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다일**



① 밥퍼나눔운동본부

② 2014년 700만 그릇 돌파 기념 대형비빔밥 나눔 퍼포먼스

③ 2014년 오병이어 행사 중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청량리에서 정선까지 퍼지는 나눔’

하늘나눔회와 다일공동체의 특별한 협약식



다일공동체는 지난 3월 17일 강원도 정선에서 정선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단체 하늘나눔회 대표 최준만 목사와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선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봉사중인 하늘나눔회는 정선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밥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입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다일공동체는 하늘나눔회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주일 중 하루 노숙인들의 한 끼 식사를 책임집니다.

29년 째, 청량리를 넘어 10개국 17개분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급식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일공동체. 다일공동체의 섬김과 나눔이 정선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4,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선군의 자살률도 10만 명당 61.8명으로 강원도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고 노숙인이 된 사람들이 그 삶까지 놓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일공동체와 정선의 하늘나눔회가 함께 이어가는 따뜻한 나눔이 노숙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디 한 사람이라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 갱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dajl**



① 정선 밥퍼를 마치고 ② 본 재단 최일도 이사장과 하늘나눔회 최준만 목사 ③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눠드리며

**SGI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으로
진행 되는 의료비 지원사업 '동행'
다일공동체와 동부교육청과의
협약식으로 첫 스타트!**

지난 3월 31일 다일공동체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석)과 특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다일공동체는 1년 간 의료복지 및 교육복지 분야에서 동부교육지원청과 상호협력함으로써 서로 간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으로 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고액의 의료비 때문에 가족 모두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적기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가정, 일반저소득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어린이 및 청소년이며 3,4월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치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1세대 무료병원 다일 천사병원 담당으로 진행될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다일 천사병원의 첫 마음, '병원문턱이 높아 진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이 없을 때까지'란 사명 의식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김연수 상임대표와 동부교육청김정석 교육장

**다일공동체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의
협약식**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협약식

지난 3월 20일 다일공동체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신중호)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일공동체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성공적인 우호협력 관계 및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 상호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 발표, 교류 거점 공간 확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기구 역할 수행을 위하여 건립된 기관으로 다일공동체는 예술원과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원은 이를 통해 사회공헌과 동시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보 교환, 인적 자원 교류 및 교육,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두 기관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dail**



본 재단 직원, 최일도 이사장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신중호 이사장



"꿈을 선물합니다!"

김모세 님 인터뷰

다일공동체를 통해 캄보디아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김모세 후원회원은 현재 평창에서 멋진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뤄낸 멋진 삶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캄보디아의 아동에게 꿈을 선물하며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모세 후원회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의 '롬 위레익'을 후원하고 있는 김모세라고 합니다. 2015년에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현재 강원도 평창경찰서 올림픽 TF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맡은 업무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동계올림픽이자 세계인의 축제가 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개·폐회식장과 올림픽 시설 및 선수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Q. 다일공동체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2014년에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로 사역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와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죠. 2015년에 제가 섬기는 동승교회에서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준비하던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어 시기적으로 비전트립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캄보디아 다

일공동체에서 사역하는 지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비전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죠. 그곳에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밥퍼 사역과 어린이 사역 등을 하면서 한국에서 경험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네요^^

Q. 캄보디아 현지 방문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A. 현지인의 집에서 하루를 묵는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그때 그 집에서 차려주셨던 아침밥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밥상. 그 때 그 느낌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캄보디아와 아이들을 생각나게 해주네요.

Q.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다녀오신 후에, 청소년들의 성경캠프를 위하여 후원을 하신 이유는요?

A. 지금 생각해도 제가 경찰관이 되던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꿈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경찰관의 꿈과 목표를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

기까지 제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도 꿈을 꾸기조차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잘 자라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받게 된 첫 월급을 어느 곳에 써야할지 고민하던 중에 비전트립으로 다녀왔던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캠프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미래와 비전을 찾는 귀한 성경캠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Q. 그 이후에 캄보디아 아동과 1:1 결연 후원을 시작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처음엔 1:1 결연 후원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통해 몸이 아픈 '롬 워터'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아동결연 후원을 기다리는 '롬 워레이크'(롬 워터의 오빠)의 장래희망이 '경찰관'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저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동안 나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던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나의 작은 후원이 후원아동에게도 큰 힘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1:1 결연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꿈인 롬 워레이크

Q. 후원아동이 후원회원님이 경찰인 것을 알게 되어 후원회원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캄보디아 현지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아동을 만나러 캄보디아에 가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A. 네, 물론입니다. 자주 방문하여 꾸준히 성장하는 롬 워레이크를 만나고 싶어요! 시간이 흐르면 롬 워레이크는 캄보디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되어있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의 꿈이자 롤 모델이 될 롬 워레이크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네요, 제가 경찰관이 되었을 때 보다 더 기쁠 것 같아요!

Q. 가난하고 어려운 빈민촌에서 살아가지만 경찰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후원아동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A. 안녕, 워레이크! 잘 지내고 있지? 우리는 다른 국적을 갖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너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멀리서도 항상 응원할게, 캄보디아의 치안을 담당하는 멋진 경찰관이 되길 바라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힘내, 화이팅!

Q. 마지막으로 후원회원님이 생각하는 나눔이란 어떤 것이요?

A. 제가 생각하는 나눔은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소중한 빛을 어두운 곳에 비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 비춰주면 그 빛을 또 반사시키고 또 반사시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밝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눔이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에게 비춰지는 빛을 다른 곳에 또 다시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눔은 받은 사람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작은 나눔이 미래에 얼마나 큰 나눔이 될지 상상해보면 1:1 아동결연은 작은 나눔이 아닌 큰 나눔이에요. '소중한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수줍은 미소를 보이면서도 따뜻한 마음 속 이야기를 행복한 모습으로 들려주신 김모세 후원회원님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네팔, 필리핀,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후원을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그 아이들도 좋은 후원자를 빨리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한 생명을 품는 소중한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아동결연 후원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해주시길 소망하며 마무리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DAJL**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청소년 성경캠프





현 · 장 · 이 · 야 · 기

필리핀

PHILLIPHINES



류주형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오병이어 굽는 까만씨

어제 에드가 목사님과 까만씨의 미래와 아이들의 꿈, 세계 곳곳에 있는 다일공동체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중 저는 까만씨에서 직접 밥을 지어 밥퍼를 시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먼저 빵을 나눌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에드가 목사님께서도 갑자기 자랑스럽게 예전에 빵 굽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상주하는 형제 한 명과 까만씨 다일 교회의 첫 열매인 한 형제가 빵을 아주 잘 만든다고 이야기 해주시며 고철인줄 알았던 드럼통을 가리키셨는데 가리킨 드럼통으로 빵을 구웠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내일 빵을 구웁시다" 에드가 목사님의 제의에 저는 빵을 많이 구우려면 아무래도 오븐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어보며 숯불로 저기에 빵을 굽는 게 가능한지 한번 더 여쭙었습니다. 가능 하다며 에드가 목사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구웁시다. 백개든 아니면 스무 개든 아





- 1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첫 번째 빵
- 2 마약중독자였다 현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빵사 형제 롬니
- 3 빵 만들고 있는 모습

- 4 류주형 원장님 가족과 에드가 목사님 가족
- 5 빵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

니, 열 개라도 구워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지금 할 수 있는걸 하면 아마 좋은 오븐도 곧 생길 겁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 지고 있었지만 전 당장 장을 보러 갔습니다. 밀가루, 이스트, 마가린, 우유, 설탕, 숯 등 빵 만들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구입하고 목사님과 함께 늦은 만찬을 나눈 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빵 생각에 잠도 자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아침에 다시 까만씨 다일교회를 찾았습니다. 도착해 보니 원래 심한 마약중독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알란' 형제와 '릴란' 형제가 화덕을 손질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시도이기에 가장 간단한 빵으로, 하지만 한껏 정성을 담아 반죽을 하고 빵을 구웠습니다. 아무래도 허술한 기구들이기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인공의 시간 끝에 빵 굽는 향기가 까만씨 다일 교회에 가득 차고 결국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따끈한 빵을 얻어 내고

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빵을 굽고 담다 보니 아주 먹음직스러운 오병이어 도시락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예쁜 비주얼에 흠칫 놀라 박수를 치며 사진을 찍고 얼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번에 구워진 빵의 개수가 50개 남짓이라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지는 못했지만 50여 명의 아이들이라도 맛있게 먹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빵은 아니었지만 오늘 구워진 이 몇 개 안 되는 빵이 곧 까만씨 마을의 아이들이 모두 먹고도 남은 일용량 양식이 되어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뤄갈 수 있길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븐은 있어야 되겠죠? 까만씨 다일교회에서 매일 빵 굽는 향기가 끊이지 않기를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DaIL**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ARTISAN제과점의 빵을 받아든 아이들

사랑의 빵퍼를 통해 제빵 기술 교육의 문을 엽니다!

많은 분들의 기다림 속에 드디어 베트남 '빵퍼'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빵퍼가 생기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의 한계로 밥퍼까지 오기 힘든 분들에게도 직접 빵을 들고 찾아가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도움이 꼭 필요한 고아원, 학교를 대상으로 사랑의 빵을 들고 배달을 갈 예정입니다.

베트남 빵퍼는 빵을 나누는 것만 아니라 빵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술이 없거나 환경적인 제약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미혼모,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제빵기술을 가르쳐 취업의 길을 열어주자 합니다. 이제 물고기를 나누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베트남 다일공동체로 한 단계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한 협력자가 계십니다. 푸미흥 내 자리잡고 있는 ARTISAN이라는 인기 많은 제과점의 사장님입니다. 이곳은 최상의 재료로 늘 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는 곳으로 매일같이 저희 밥퍼를 찾는 분들에게 빵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사장님은 빵퍼에서 선발한 실습생들을 전문적으로 지도도 해주고 취업까지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ARTISAN 제과점 황정태, 이은희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같이 이웃을 위해 손 잡아 주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기에 이웃을 섬기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듯 합니다.

제빵 기술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빵 교육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오늘도 참 행복합니다!

현악기 선율을 타고 나눔을 함께한 'ARDITO' 콘서트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한 ARDITO 후원의 밤 음악회가 수익금 전액(6,000,000동, 한화 약 30만원)을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다양한 아이들이 연주하는 악기의 선율이 마음 가득 감동으로 전해져 왔던 콘서트. 이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며 연습했을 아이들의 모습과 이들을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을 안혜선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니 어떤 음악회보다도 더 값지게 다가왔던지요. 아름다운 연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일 듯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악기의 선율로 사랑을 표현해 제게는 더 감동으로 다가왔던 'ARDITO'단원들의 연주. 자기가 가진 재능을 통해 이웃을 돌아보는 ARDITO 안혜선 선생님과 단원들이 있는 곳에 늘 행복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DAJL**



① ARDITO합주

② ARDITO 우크렐라 연주

 베트남 다일공동체 | +84-9038-20918

ARTISAN제과점 내부



우간다 UGANDA



김혜경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다일이 빵퍼로 섬기고 있는 키티코초등학교는 날마다 아
이들이 전학을 옵니다. 이번 학기도 전체 학생이 337명으
로 지난 학기보다 7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빵과 우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빵이 복음입니다.

337명 중 90명이 일대일 후원이 결연된 아동들이며 이미
졸업한 중고생(Secondary School)들도 15명이 결연 아동
입니다. 중고생들의 경우, 한 학기 학비가 25만 실링(한화
9만원) 이상으로 가난한 빈민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금
액이기 때문에 학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돕고 있습니다. 우
간다는 1년에 3학기 제도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학비 걱
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습니다.

KIGO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또 하나의 정부초등학교가 있습니
다. KIGO Prison Primary School인데요, 학교 이름에
Prison(교도소)이 명시되어 있듯이 학교 인근에는 교도소
가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를 가
진 아이들이나 교도소 직원(경찰)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라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뵈었고,
에이즈 고아들의 수를 여쭙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300명
이 넘는 전체 학생 중 100여명 정도가 에이즈로 부모를 잃
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에 우간다 다일공동체는 4월부터 KIGO 초등학교를 제
2의 사역지로 정하여 빵퍼로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우간
다의 일일 급식비는 50불(6만원) 한 달 급식비는 1,000불
(120만원) 일대일 아동결연 후원금은 3만원입니다. KIGO
초등학교 100여명의 아이들도 일대일 후원자가 속히 결연
되어 빵과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
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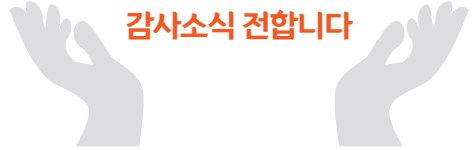
키티코 초등학교의 일대일 결연아동





THANK YOU

감사소식 전합니다



#01

지난 호에 알려드린 희망이 님이 사주신 가방은 333명에게 모두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02

우간다는 우기입니다. 비가 오면 기온이 뚝 떨어져 입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많이 추운데요. 그래서 저희는 얇은 교복 하나만 입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헌 옷 모으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간다 한인교회 성도들이 옷 200여 벌을 보내주셨고, 이 옷으로 저희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입힐 수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소식을 전해 듣고 천사 한 분이 아이들에게 스웨터를 사 입히라고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오생단(오혜숙 생활 단식) 오혜숙 원장님 감사합니다. **DAJL**



- ① 나는 옷으로 갈아입은 결연아동
- ② 옷 나눔 준비
- ③ 나는 옷을 입고 단체 촬영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개학을 맞았습니다!

3월 2학기(중국은 9월에 학년이 올라갑니다) 개학을 맞아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과 직업고중 학생들은 학
교로 돌아갔고 나머지 아동들은 개학 후 첫 시험을 치렀습
니다. 새 학기를 맞아 새 교과서를 받은 아이들은 서로 도와
가며 책을 새로 싸고 이름도 붙입니다. 소학생 녀석들을 위
해 한 학기를 함께 준비해준 고등학생 언니들. 각종 물품들
을 열심히 준비해주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고맙던지
요. 우리 아이들 모두 새 학기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길 함
께 기도해주세요.



춘연

춘연이의 마지막 생일파티

21일은 상우의 생일이고 24일은 춘연이의 생일이라 매년
이 두 명은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는 각각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춘연이의 생
일이 다일어린이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춘연이는 올 9월 1일로 다일어린이집에서 독립을 해야 하
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심걱정이 많지만 나는 새를 떨어
트리지 않으시며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늘 춘연이와 함
께 하시기에 열심히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는
춘연이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①, ② 개학 ③ 춘연

요짱의 헤어디자이너용 전문 가위 세트를 후원해주세요!

요짱은 기술학교 미용 미발과 졸업 후,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일어린이집에서 독립, 사회로 나아가 미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 어린이집에서 독립할 때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독립 시 숙식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였고 그 덕분에 요짱이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미용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짱이는 현재 다일어린이집에서 독립한지 정확하게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매일 11시간 근무에 한 달 2일 휴무, 2000위엔(약 330,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요짱이. 요짱이는 워낙 성실하고 일을 잘해서 일반 미용보조에 비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러나 혼자 매달 500위엔의 월세를 내야하고 식비, 교통비에 이르기까지 지출이 많아 하루하루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이렇게 3년은 더 버텨야 미용사로서 당당히 월급도 받고 기술도 느는데 문제는 혼자서 이 3년의 시간을 적은 월급으로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가끔 저는 요짱이가 일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보통 미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용 가위가 요짱이에게는 없습니다. "요짱, 너도 전문 가위를 사야지"라는 제 말에 씩 웃으며 "좀 이따..." 라고 말하는 요짱은 속상한 표정 한 번 짓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원하지만 월급에 버금가는 그 가위가 염두가 안 나겠지요. 꼭 필요하지만 자신만의 전용 가위는 요짱이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늘 긍정적이고 불평이 없는 요짱이가 미용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분, 요짱에게 정말로 의미있는 선물을 해주실 분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da:ll**

 중국 다일공동체 | +86-433-753-8004



① 최근 전체사진

②, ③ 일하고 있는요짱 모습



호프클래스 시험 보는 학생들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호프클래스 시험 보는 학생들

호프클래스 4기 아동들의 첫 번째 시험

호프클래스 4기 40명 아동들이 첫 번째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아동들의 생애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지난 두 달 간 열심히 배우고 익힌 것들을 테스트 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수학, 영어, 스와힐리어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태권도를 시험 본다면 모두가 백점 만점일텐데, 문제들이 영 풀리질 않는가 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는 모습들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가정형편으로 일반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또래 친구들보다 몇 년은 뒤졌지만 그래도 다일호프클래스를 만나 다행입니다. 일반 공립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간식은커녕 점심을 굶는 현실을 생각하면 맛있는 간식과 점심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 매월 마지막 금주일에 있을 시험들처럼 그들의 인생에 다양한 시험들이 기다릴텐데 이번 시험처럼 깨끗하게 이겨나가길 기도합니다.



소피아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소피아 집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소피아 가정에 천사를 보내주세요!

소피아는 7세로 호프클래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엄마와 오빠 세 명,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소피아는 한창 밝게 뛰어 놀 나이지만 늘 수심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세 명 오빠의 아버지는 소피아의 어머니가 AIDS라는 사실을 알고 집을 떠났습니다. 현재 같은 다르에스살람 안에 거주하지만 소피아의 가족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기가 막막하던 소피아의 엄마는 소피아의 아빠를 만나 소피아와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냇동생이 태어난 직후, 소피아의 아빠는 갑자기 집을 떠났고 며칠 전 반신마비가 되어 돌아온 아빠는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소피아의 엄마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많이 아프신 상태입니다.

소피아 가족은 물도 전기도 없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흙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의 월세는 20,000실링(한화 12,000원)인데 지금 걷기도 힘들 정도로 소피아 엄마가 많이 아픈 상태라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서 월세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와 이웃들의 도움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상황에서 엄마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소피아의 엄마는 병을 앓기 전 숯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 자녀들에게 흙집이라도 물려주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

아 현재 집값 500,000실링(한화 약 9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제 1,000,000실링(한화 60만원)만 더 내면 이 흙집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병세가 심해져 도저히 더 이상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 번 가정방문을 갔을 때 “만약 남은 돈이 해결된다면 내가 죽어도 우리 아이들이 불뿔이 흩어지지 않고 이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시던 소피아 엄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힘든 것보다도 당신이 죽었을 때 남겨질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남은 집값 1,000,000실링(한화 60만원)만 해결된다면 소피아와 형제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엄마가 돌아가신 후 5남매는 불뿔이 흩어져야만 합니다.

현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서는 소피아 가정을 위한 긴급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5남매의 아동결연 후원자를 위해 집값 잔금 60만원을 위해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흙집을 벽돌집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300만원 후원천사를 위해... “우리의 기도가 이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피아와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준비하신 후원천사들을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도 함께 기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DAIL**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255-629-426-641

네팔 NEPAL



구살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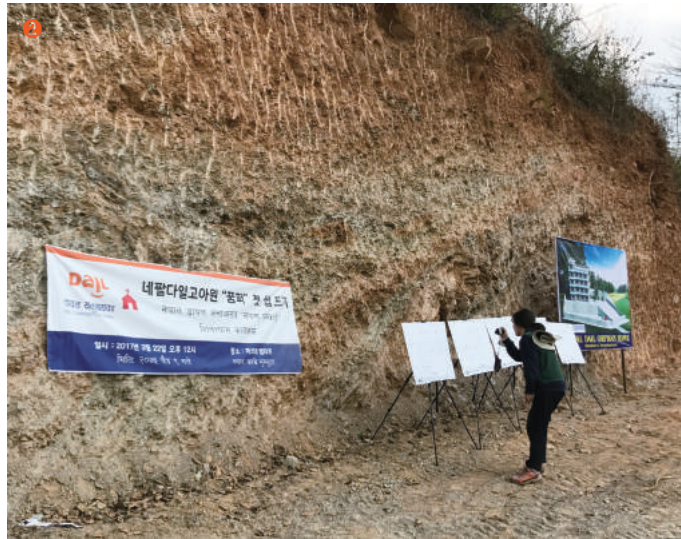
2015년 9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수많은 부상자를 낳은 네팔 대지진. 거의 3천만의 네팔인들은 지진의 아픔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 교육이 필요한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네팔 다일공동체는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진 후 저희는 신두팔축 지역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 의 뜻을 물어 까브레 지역에 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꿈과 소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네팔다일비전트립에서는 고아원 건립을 위한 ‘첫 삽 뜨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일비전트립팀과 마을 주민들과 신두팔축 지역에 건축된 9개 교회 교인들이 함께 한 마음, 한 소망으로 행사는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4층 건물의 고아원 조감도와 평면도가 함께 공개되어 건물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1층은 도서관과 식당, 2층은 남아 숙소와 공부방, 3층은 여아 숙소와 공부방, 4층은 스텝숙소와 예배당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포크레인으로 산을 깎아 길을 내어 주차장과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고 3km 밖, 산에 물탱크를 만들어 물을 끌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먼저 있어야 다른 일이 쉽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탱크를 만든 곳은 깨끗한 물을 찾기가 힘든 곳이었는데 저희가 만든 물탱크에서 넘치는 물은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되어 주민들은 아주 기뻐 하였습니다. 물을 끌어오는 작업이 완료되면 건물을 짓기 시작할 텐데 공사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후원자들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dail**



① 네팔 다일 고아원 첫삽 뜨기 세리머니
② 포크레인으로 산 깎은 후 고아원 평면도 설치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도시민민들의 희망, 캄보디아 프놈펜 다일공동체

캄보디아의 수도는 프놈펜입니다. 꿈을 안고 도시를 찾아 오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는데 무작정 상경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펜 지부는 200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도시민민들을 위한 밥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지원대상을 기존의 빈민촌에서 더욱 확대하여 쓰레기 매립장 주변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폐품을 모으는 이웃들을 위해 이동 밥퍼와 빵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빵퍼는 대한적십자 헌혈 기부권 사업에 채택이 되어 현재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빵퍼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빵 나눔, 직업교육, 빵퍼 교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빵 나눔은 양질의 빵을 만들어 밥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빈민촌의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인기 최고입니다. 소보로, 고구마빵, 크림빵, 모카빵 등 다양한 빵을 밤낮으로 나누고 있는데 매일 새로 만든 좋은 빵을 나눠주니 받는 사람마다 엄지를 치켜들며 최고라고 외치며 행복해 합니다.

직업교육은 빈민들 중 직업을 얻기 원하는 젊은이, 일용직이나 폐품을 줌의 아주머니 등 다양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빵 기술도 전수하고, 급여를 통해 집안 형편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이들은 3월부터 교육을 시작, 열의를 보이며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빵퍼 교실은 캄보디아 날씨 중 가장 뜨겁다는 3,4월의 불볕더위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래 시작하려 했던 공간에서는 빵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채택된 헌혈기부권 사업을 통해 건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낡은 자재들을 철거하고 기초 공사에 들어간 이번 빵퍼 교실 공사는 5월을 목표로 지금도 한창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센터 밥퍼와 이동 밥퍼, 센터 빵퍼와 이동 빵퍼로 인해 프놈펜 지부에서는 매일 같이 향긋한 밥 냄새, 빵 냄새, 사람 냄새까지 가득합니다. 프놈펜 지부에서는 국산청차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밥을 가득 싣고 빵 박스는 남자 4명의 다리 위에 얹고 다니며 배식을 다니자니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밥퍼 오토바이와 집기를 구매 하려고 하는데 4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안전과 더욱 은혜로운 이동 배식을 위하여 후원에 동참해 주실 천사를 기다리겠습니다. **DAIL**

빵 만들기 교육에 열중인 캄보디아 교육생들

캄보디아 빈민들에게 만든 빵을 나누는 모습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변창재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3월 24일 결핵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결핵협회 직원들과 함께

세계결핵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결핵협회 직원분들께서 밥퍼 봉사를 오셨습니다. 밥퍼 봉사뿐만 아니라 노숙인 어르신들의 결핵검진까지 책임지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오신 대한결핵협회 직원분들. 대한결핵협회 직원분들은 아침 일찍, 밥퍼 시작 전부터 어르신들 진료를 위해 분주히 움직여주셨습니다.

일찍 오신 어르신들부터 한 분 한 분씩 성함을 적게 해드린 뒤 차례대로 진료를 봐주신 대한결핵협회 직원분들. 700명이 넘는 노숙인과 어르신들이 오셨으나 대한결핵협회 직원분들은 힘들어 하는 내색 없이 밝은 얼굴로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하셨습니다.

대한결핵협회 직원분들은 밥퍼 봉사와 결핵검진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누룽지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까지 후원해주셨습니다. 안그래도 밥퍼에 너무나도 필요한 기계였지만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 후원해 주실 분들을 기다렸었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결핵협회가 최고야~ 다일공동체 밥퍼가 최고야~

입대 하기 전 특별한 봉사

특별한 봉사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입영 날짜를 받고 이제 곧 바다를 지키는 해군에 입대하는 이경남 봉사자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놓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입대를 앞둔 시점에 봉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결핵검사 받기위해 줄서 계신 어르신들



요리를 전문으로 배우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그는 칼을 잡는 모습부터 다른 20대 초반 남성답지 않게 능수능란했습니다. 불을 사용해야 하는 일들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에 전문 요리사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자주 오다 보니 힘들 법도 한데 단 한번도 설렁설렁하지 않고 자원봉사가 다 끝난 뒤에도 주방 스템들의 일을 도와주며 마무리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돕는 모습에 봉사자로서 앞으로 국방을 지킬 대한군아로서 어찌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2~3주 동안 마포에서 청량리까지 성실하게 자원봉사에 임해주신 이경남 봉사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밥퍼 계속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또 만나요!

충성! 강한 친구 군인공제회 기획조정실, 재무관리본부 등 7개 실 직원들

군인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군인공제회 기획조정실, 재무관리본부 등 7개 실 직원분들의 봉사 소식 전해 드립니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4년 2월 1일 창립된 국군의 종합복지기관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변화와 혁신, 수익 창출 역량 강화, 내부 강약점 분석과 외부 기회·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선진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단체, 군인공제회. 대부분 건강하신 남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인공제회는 완벽하게 주방 일을 끝마치셨는데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원봉사 마지막 시간이 끝나면 지칠 법도 한데 주방 청소도 깔끔하게 해주셨던 군인공제회 봉사단원분들.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해 주시며 밥퍼에서의 자원봉사가 너무나도 보람 있고 감동이 되어 군인공제회와 함께하고 있는 자회사들도 앞으로 함께 참여하겠다는 말에 저희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단체사진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DAIL ANGEL'S HOSPITAL DAIL LITTLE HEAVEN



임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다일작은천국에서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16,17일 두 차례 나눠 한 시간씩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고혈압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일차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기본질환 및 영양이론식 교육, 2일차에는 운동 교육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성인병 중 하나인 고혈압은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질환으로 주로 30,40대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불문,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다일작은천국 입소자 분들 대부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병이 아닌 많은 질병을 함께 앓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기반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 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가졌습니다.

1일차 이론교육은 고혈압의 정의, 질병의 위험성, 질병의 사례 등의 주제로 전문의를 통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후에는 입소자 분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어 자신의 몸 상태와 질병에 대해 질문을 갖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일차 운동교육에서는 입소자들과 자원봉사자 1:1로 짝을 지어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운동이라는 말에 입소자 분들 몇몇은 거부감을 보이셨으나 교육을 재미있게 이끌어주신 강사님과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가가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어르신들 역시 금방 함께 어우러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큰 어려움 없이 교육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입소자 분들이 올바른 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던 2일 간에 이뤄진교육! 이번 교육을 통해 입소자 뿐 아니라 직원들도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천사병원에 약품을 기증해 준 태응약품 및 오스틴약품, 인천약품

태응약품 및 오스틴, 인천 약품에서 수많은 약품을 천사병원에 기증해주셨습니다. 태응약품 최만익 대표님은 2009년, 2013년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약품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약품이 한 트럭 가득 실려와 천사병원 앞에 서고, 천사병원 약품을 옮기기 위해 다일공동체 남자 직원들이 모두 달려나와 정성껏 후원물품을 병원 안으로 옮겼습니다. 올해 역시 기쁜 마음으로 약품을 기증해주신 최만익 대표님과 오스틴약품 인천약품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dail**



전달 받은 의료물품



운동교육 모습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 am . a . happy . volunteer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그룹엠코리아

그룹엠코리아 임직원분들이 일주일 동안 봉사를 오셨습니다. 기업이 3개로 나뉘져 있어서 직원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이죠. 평생 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직접 와서 밥을 퍼 드리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많은 분들이 후원에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개인적으로 봉사를 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저희 밥퍼 가족들도 감동이 차고 넘쳤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 허광일 위원장님과 새터민분들이 밥퍼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당당하시고 무게감 있는 모습에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요. 막상 자원봉사를 시작하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설거지를 하시고, 많이 드시라고 넉넉하게 밥을 퍼 드리는 모습에 따뜻한 동포애가 느껴졌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한민족이 함께 만나 밥을 나누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밥이 답이다! 밥부터 나누세!



의정부 국제 크리스천학교

소수의 한국학생들과 외국학생들로 이루어진 의정부 국제 크리스천학교 소식입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어 봉사를 진행할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였으나 한국학생들이 통역해주어 무리 없이 밥퍼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난생처음 칼을 잡고 파를 썰고 팜을 뺄뻔 흘리며 주걱으로 밥을 뒤집는 모습이 서툴러보였지만, 봉사를 하러 온 따뜻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불타올랐습니다. 이들 동안의 봉사 기간이 끝나는 날, 그동안 아끼고 모은 후원금을 밥퍼에 전달하며 다음에도 꼭 오고 싶다는 그 마음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천국 LITTLE HEAVEN



석관고 이과반 팀

2016년 3월 석관고등학교 서여민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반 제자들과 함께 다일작은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매달 학생들과 따뜻한 봉사를 실천해주셨던 선생님께서 1년이 지난 2017년 3월 새로운 반 제자들과 함께 이 곳 다일작은천국을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고육을 실현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진정한 배움을 얻고 가는 것 같아 보기 좋았고, 저희 또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과 훌륭한 제자들의 아름다운 인생 비행을 응원하며 항상 저희 다일작은천국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휘경공고 자동차금형과 팀

휘경공고 팀이 이번 2017년도에도 저희 다일작은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몸이 많이 아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저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6시간의 의무 봉사이지만 의무가 아닌 진심을 다해 봉사를 해주시고 간 휘경공고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서울시립대 RCY 팀

2017년 봄, 서울시립대 RCY팀이 뜻깊은 신입생들과 함께 저희 다일작은천국을 다시 방문해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매주 봉사할 와 따뜻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친구들이 벌써 어엿한 선배가 되어 후배들을 데리고 왔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던 서울시립대 RCY 팀을 힘차게 응원하며 2017년도에도 따뜻한 나눔과 섬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VIETNAM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2013년도부터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준 대.청.밥 단원들의 선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대.청.밥 단원들의 활동은 학생들의 헌신적 참여 덕분에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유일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임에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온전히 그 시간마저 내어놓는 아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2017년도에도 새롭게 선출된 강신혜 회장과 신지민 부회장 및 단원들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편흥적십자

매일같이 밥퍼에서 영양가 넘치는 밥과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계십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면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와 협력해 주시는 든든한 지원군인 편흥적십자 분들입니다. 엄마 같은 따뜻함과 친구 같은 다정함으로 주변 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편흥적십자 분들이 계시기에 밥퍼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싶어 하는 이분들의 마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길, 그래서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중국 CHINA



훈춘시 제2실험소학교 4-2 학생들

훈춘시 제 2실험소학교 4학년 2반 학생들이 조를 나누어 연이어 방문, 봉사하였습니다. 용돈을 절약해 맛있는 간식과 선물도 준비해 방문하여 도서정리 및 각종 활동에 열심히 참석해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공산당 청년 연합회

훈춘시 합작구의 공청련 소속분들이 방문하시어 어린이집의 고장난 의자 및 집기들을 수리해주시고 대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선물로 쌀 10포대도 준비해주셨던 공산당 청년 연합회 여러분들,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필리핀 PHILLIPHINES



필다일 어머니 봉사단

누구나 오세요! 함께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을 섬깁시다! 이 같은 생각으로 현지인 자원봉사자 모임을 결성한 이래 매일 5~10명의 현지인 자원봉사자가 필리핀 밥퍼를 찾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이른바 '자원 봉사자의 날'. 한 달 만에 서른 명 가까이 되는 봉사자가 생겼는데 이번 자원봉사자 날에서는 '엄마들의 1일 선생님 되기'를 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재능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겠다는 현지인 엄마들. 지금 필리핀 다일공동체에서는 '1페소의 기적 (Miracle of 1peso)'에 이어 '한 사람의 기적(Miracle of 1person)'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은 헌신이 힘을 얻어 큰 움직임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을 구합니다.

캄보디아 CAMBODIA



큰은혜교회(2/5~10), 군산참사랑교회(2/13~16), 굴현교회(2/16~18)

2월에 3개 교회에서 캄다일에 비전트립을 다녀가셨습니다. 큰은혜교회는 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해 가며 현지 환경을 체험하고 도시빈민과 가난한 시골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와 주셨고, 꿈퍼 장학금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군산참사랑교회는 캄보디아 아동결연(후원)을 6명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밥퍼 봉사도 하고 센터 지붕보수를 위한 후원도 해주셨던 군산참사랑교회 분들. 후원 어린이들과의 만남도 가졌는데 아이들과의 만남은 눈물겹도록 감격적이었습니다. 굴현교회는 센터 밥퍼 봉사 뿐 아니라 놀이터 후원 및 유지보수까지 해주셔서 지역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사소년 하나투어 희망여행(2/28~3/2)

호프판사로 알려지신 부산가정법원 천중호 판사님께서 이끄시는 만사소년 20여명(보호 청소년)이 하나투어 후원으로 희망여행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로 오셨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캄다일 꿈퍼 학생들을 위해 돛 형식의 천막 도서관을 직접 조립, 건립하여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만사소년은 컴퓨터 프린터 냉방설비까지 후원해 주셨고, 더불어 하나투어에서도 돛도서관과 도서관 도서 등 진행경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은희 & 최동진 박사님 1/4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엄은희 박사님과 동 대학 국토연구원 최동진 박사님이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연결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는 캄다일에 적정기술을 이용, 정수시스템을 만들어 안전한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지속적 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태 조사를 통한 적정기술 적용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신 박사님들, 떠나시기 전 후원금까지 전해주시신 엄은희, 최동진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인제대학교 1/17

매년 인제대학교는 대학생 봉사단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후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건장한 청년들이 캄다일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정성스레 밥을 만들어 캄다일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 주며 아이들에게 예쁜 추억을 선사준 인제대학교 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중인 **밥퍼니눔운동본부**.
몸이 불편한 이웃들도 언제나 맞이할 수 있도록 밥퍼에 꼭 필요한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약자용 리프트 시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불편함 없이 밥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리프트 설치 비용 **2,8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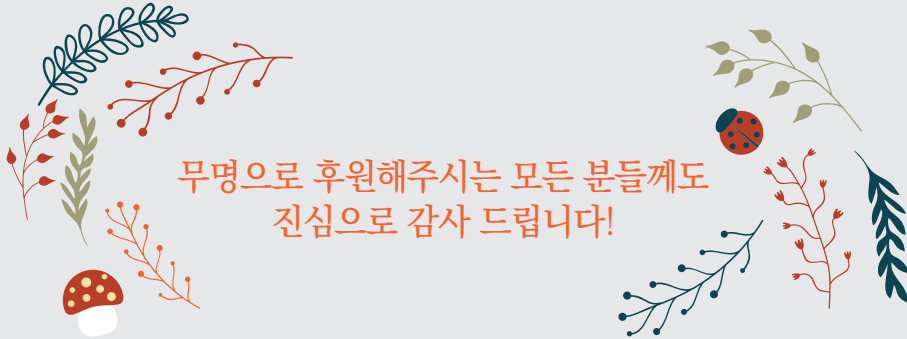
누구나 편히 찾아와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쉼 있는 공간이 바로 밥퍼가 될 수 있길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p>신규후원회원 2017.02-2017.03</p>	<p>(주)ASB상사, (주)도씨에, (주)맑은물환경, (주)멤플러스, (주)서진강재, (주)예성투게더, SEBA, 갈릴리 채플, 강원청과, 강은주, 강지훈, 경규환, 곽호정, 구민정, 권상민, 권운대, 권재순, 권형민, 권희연, 김경민, 김규연, 김금연, 김다솜, 김동욱, 김말자, 김미숙, 김병기, 김상윤, 김석진, 김성자, 김소현, 김순덕, 김영미, 김영희, 김윤숙,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애, 김은영, 김정민, 김정옥, 김태균, 김태기, 김항미, 김현영, 김형균, 김혜련, 김혜성, 김호진, 김홍계, 남궁은자, 남은실, 동선녀, 류경숙, 맹경숙, 목민수, 문수경, 민경호, 민동진, 민주홍, 박경숙, 박경순, 박경조, 박봉균, 박산돌, 박선욱, 박성연, 박성일, 박수진(문상유), 박승원, 박영규, 박영범, 박영석, 박오열, 박은미, 박은정, 박진수, 박진숙, 박찬미, 박태원, 박현경, 박현섭, 박호성, 배성은, 백승현, 백연수, 변영희, 부산천사(장선헤), 부성현, 생명새교회(정석우), 서동임, 서미애, 서봉오, 서요한, 서원감리교회, 서태석, 서호비, 설악축산 정육마트, 손병갑, 손혜영, 손훈천, 송길재, 송창연, 송치봉, 한근, 송현근, 스마일민치과교정과치과의원, 신근희, 신동찬, 신영미, 신영자, 신옥희, 신용대, 신지철, 심규종, 안승진, 안찬호, 양은구, 양혜선, 염금봉, 예순, 옛날손짜장, 오병호, 오승경, 오진석, 우종욱, 유미옥, 유성현, 유승열, 유채영, 유현주, 윤보라, 윤성진, 윤종선, 윤주자, 윤지성, 이규창, 이근철, 이민희, 이상록, 이상철, 이선정, 이수덕, 이수미, 이수연, 이승현, 이승화, 이영수, 이영숙, 이영아, 이영훈, 이용철, 이운재, 이재진, 이재학, 이정삼, 이정희, 이정희, 이주현, 이종일, 이지예, 이진환, 이진희, 이창숙, 이종임, 이태경, 이태성, 이현화, 임기훈, 임치남, 장병근, 장순현, 장운진, 장인석, 장재웅, 장진형, 장현수, 장효빈, 전아론, 정복희, 정영숙, 정영순, 정영애, 정윤단, 정재곤, 조기풍, 조민정, 조성직, 조용권, 조용문, 조용현, 조윤희, 조은혜, 조재영, 조현준, 조희경, 좋은이웃교회, 주식회사 케이우드, 주정례, 차정환, 채욱기, 채종렬, 천세영, 천승재, 최미란, 최병용, 최선경, 최성남, 최옥순, 최윤정, 최은호, 최익준, 최준훈, 최태섭, 편정옥, 한상임, 한은비, 한인형세무사무실, 한진주, 한철구, 해태부동산, 흥경진, 흥승빈, 흥척기</p>
<p>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2017.2.16-2017.4.15</p>	<p>후원물품 / 디아코노스(보습크림),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마스크팩,한방기글,안전화,RYU99), 쌍용양회공업(주)(간식),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오스틴약품, 이연제약, 인천약품, 태웅약품</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네팔 다일공동체 2017.2.16-2017.4.15</p>	<p>후원금 / 광주다일교회 서해현장로, 김민희, 네팔한인교회 여성도회, 대구하늘담은교회 14여전도회, 돌로이비전팀, 아름다운가족교회, 여수동광교회 박찬일목사, 여수성은교회 변영원목사, 영진교회 서광욱목사, 예수원 최요한목사, 유승연, 이흥기, 장지숙, 청주영광교회 이상용목사</p> <p>후원물품 / 광주소망교회</p>
<p>필리핀 다일공동체 2017.2.16-2017.4.15</p>	<p>후원금 / 바랑가이 E. Malia & Pulido 주민 일동(1페소의 기적), 류호열</p> <p>후원물품 / 온누리 한의원 박성민 선교사님(비타민)</p>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2017.2.16-2017.4.15</p>	<p>후원금 / NIS, 강기호·도진광·김형제, 권미지·한수정, 굴현교회, 김건중선교사님, 공사량배움터, 대구일심교회, 대일, 만사소년, 명진건설, 비인교회, 서천제일교회, 세움교회, 수원시 조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승애 회장님, 옥천교회, 의곡교회, 인천동산교회, 인천시 아동복지협회, 참사랑교회, 충현복지관, 프놈펜제일교회, 프놈펜제일교회, 학하교회</p> <p>후원물품 / Matthew Ahn · Reveka(학용품, 체육용품), 교민봉사팀(도마10개, 칼10개), 굴현교회(옷), 그린투어(학용품), 김기봉(옷, 식료품), 대교(체육용품), 만사소년(동 도서관 설비, 학용품, 가방), 명진건설(식료품), 밀양·울산 로타리클럽(옷, 학용품, 식료품, 잡화), 박육분(의약품), 산참사랑교회(악기, 학용품, 의류), 서천제일교회(옷, 학용품), 손형주집사(월계란300개), 수원시 조원1동 주민자치위원회(잡화, 학용품), 유성수(음악용품, 체육용품), 인천시아동복지협회(학용품), 충현복지관(옷, 잡화, 학용품)</p>
<p>베트남 다일공동체 2017.2.16-2017.4.15</p>	<p>후원금 / A PLUS, ARDITO, NAHAL,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산상선, 오희승님, 참조은광성교회, 캐나다 다일공동체, 한마음연합교회</p> <p>후원물품 / ARTISAN(빵), 김미경님(옷, 양말, 바지, 운동화, 치마 등), 김찬님(아동복), 대신택배(물티슈), 한마음연합교회(바나나, 김, 초코파이, 쌀)</p>
<p>중국 다일공동체 2017.2.16-2017.4.15</p>	<p>후원금 / 권윤경, 김나현, 김성자, 김성재(Obey & Praise), 김시현, 다일졸업생 모임, 리징, 비브리지, 연길 홀트, 제4중학교 7학년 6반, 천은영, 최의열</p> <p>후원물품 / 권윤경(정기 아동간식 지원), 만국상점(아동간식), 사랑유치원(빵), 아리랑 애심협회(오리알), 영광제빵(빵 4상자), 이수빈(속옷, 양말), 전영복(딸기, 옷), 훈춘마미친(쌀, 식용유), 훈춘시 각 학교 학생 봉사팀 다수</p>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017.2.16-2017.4.15</p>	<p>후원금 / HOPAC, 서울가든, 이해명, 이효은</p>
<p>우간다 다일공동체 2017.2.16-2017.4.15</p>	<p>후원금 / 김희연, 정미향</p>
<p>미국 다일공동체 2017.2.16-2017.4.15</p>	<p>후원금 / Hea Shick Ha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Yang Hui Gallagher,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The Servant Korean Evangelical Church), 이완수, 이동선(Wan Soo Lee, Dong Sun Lee), 이종호 ENGLISH CLASS</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32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정기후원	1:1 해외아동결연 (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	
	천사기업(월 10만원)	기업이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선도해나가는 후원입니다.	
	천사교회(월 10만원)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 (긴급한 사역에 우선으로 사용됩니다.)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예금주 : 다일작은천국	우리은행	1005-801-848969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은행이름: Bank of America
 예금주: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334040926776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국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13542
 Inst. No : 004
 ON M6N 4x7, CANADA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 | | |
|---|---|--|
| <input type="checkbox"/>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 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 _____ 원 |
| <input type="checkbox"/> 천사기업
월 10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천사교회
월 10만원 _____ 구좌 | |

일시후원

- | | |
|---|---|
| <input type="checkbox"/>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input type="checkbox"/>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
|---|---|

후원회원 정보

이름	주민등록 앞번호	(남/여)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SMS수신동의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Email수신동의
주소		<input type="checkbox"/> 우편물수신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이체희망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남/여)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주소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fax 02-2243-8005  다일공동체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Sea Breeze APT SB-2, Plot No. 192,
Dar es Salaam, TANZANIA
Tel. +255-629-426-641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다일공동체 대표번호 02-2212-8004로 전화주시면 전 분원, 전 부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dail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 걸

김연수 시인

때때로 할 말
다하지 못했어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언젠가 옳은 것과
다른 선택을 했어도
너무 자책하지 마
한 인생 살면서
어떻게 옳은 선택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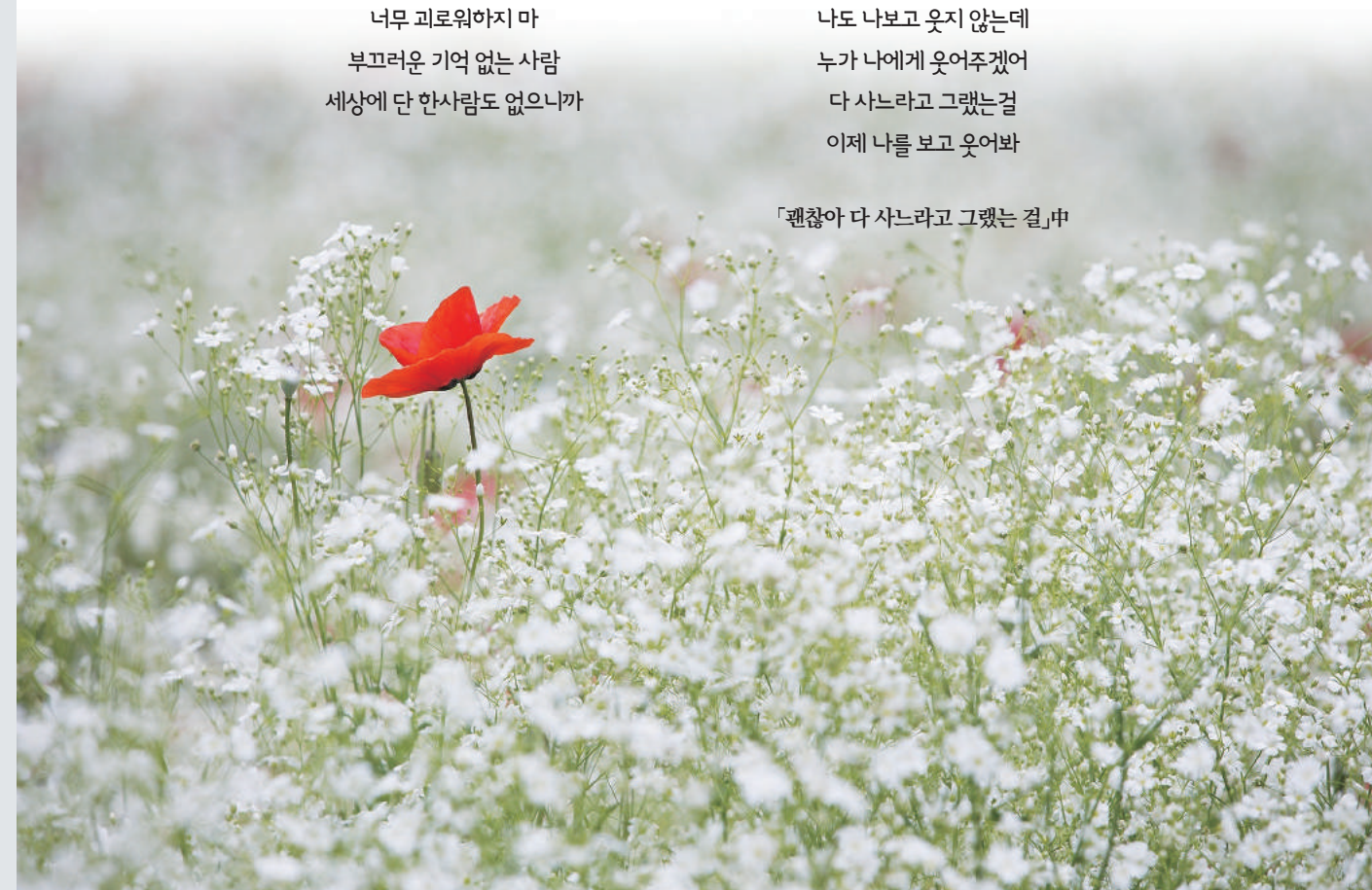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잊고 싶었던 부끄러운 일
자꾸만 생각나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
부끄러운 기억 없는 사람
세상에 단 한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리 애써 보아도
하고 싶은 일 잘 되지 않아도
너무 애태우지 마
언젠가는 꿈과 소망이
바라던 것보다
잘 될때도 있게 마련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 걸
그것이 인생이잖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제몫의 세상살이
살아내느라 그랬는 걸...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나도 나보고 웃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웃어주겠어
다 사느라고 그랬는 걸
이제 나를 보고 웃어봐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 걸」中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개설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추가해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작성

예금주 서명 必



후원신청서
사진 전송



다일직원
확인전화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아름다운 세상찾기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4박 5일)
182기/ 6월 6일 ~ 6월 10일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칼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 031 585 2004
010 6375 8004
홈페이지 : www.dail.org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 10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 김철민 형제 010 2752 9004

네비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밥퍼에서는 매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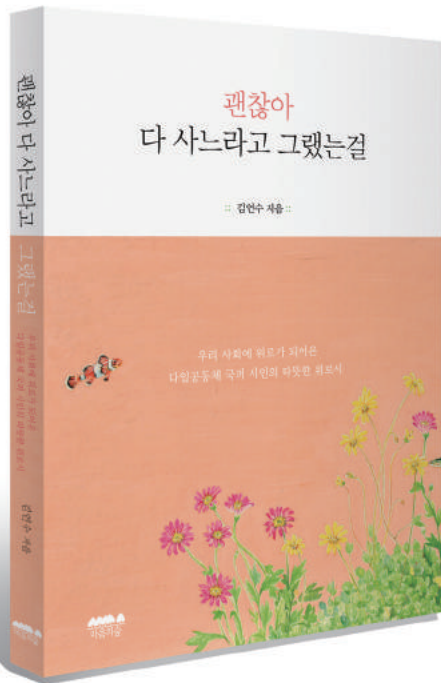
설곡산칼보리채플
SEOLGOKSAN CALVARY CHAPEL



이땅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괜찮아!”

다일공동체 국퍼 시인의 따뜻한 위로시



김연수 지음 | 168쪽 | 값 11,800원



《꽃심》이후 6년 만에 내놓는 시집입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에 시만큼 나를 위로해 준 것이 없기에
시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집을 엮었습니다.

써 놓은 시를 읽다보니
시가 쓰여진 상황들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기쁨은 물론 슬픔과 좌절,
심지어 절망스럽던 순간까지도….

봄이 옵니다.
얼었던 시냇물이 흐르면서 말합니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다 사느라 그랬는걸!

이 한마디, 한 문장에 당신의 마음 또한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